

# 王安石的〈擬寒山拾得詩20首〉研究

이선희\*

## <目 次>

1. 서론
2. 退隱과 詩作動機
  - 1) 退隱時의 상황
  - 2) 佛敎에 대한 심취
  - 3) 가족과 詩作 動機
3. 〈擬寒山拾得詩20首〉의 내용 분석
  - 1) 구성과 주제
    - (1) 構成
    - (2) 主題와 素材
  - 2) 模擬 樣相
    - (1) 擬作 樣相
    - (2) 擬作 方式
  - 3) 王安石의 晩年心境과 메시지
4. 결론

## 1. 서론

왕안석은 북송의 대표적인 정치가이자 대표적인 문인이기도 하다. 정치적으로는 두번에 걸쳐 재상을 역임하면서 역사상 전례없는 대대적 개혁을 추구하다 결국 실패를 맛보아야했던 풍운의 정객이다. 또한 문학적으로는 16세부터 시를 쓰

\*배재대학교수

기 시작하여<sup>1)</sup> 40여년 동안 300여편의 문장과 1500여수의 시를 남긴 송대의 대표적 문인이다. 특히 그의 시는 송대의 대표적 시인인 蘇東坡 黃庭堅 등과 비견될 정도로 높은 위상을 점하고 있다. 따라서 왕안석의 詩文과 詩作 활동에 대한 연구는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실정이다. 왕안석의 詩作 활동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송대 葉夢得은 〈石林詩話〉에서 왕안석 詩作 歷程을 시의 풍격 변화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青年時期, 官職時期, 사직 후의 晚年時期로 분류하였으나<sup>2)</sup>, 근래에는 왕안석의 정치활동 기간과 연계시켜 소재의 변화 추이에 주목하면서 제2차 재상직의 사직 이전과 그 이후의 두 단계로 나누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왕안석의 詩文은 熙寧10년(1077) 2차 罷相이후 金寧에 귀향한 후 1086년 사망 시까지 약 10년간의 鍾山 은거기간이 창작활동의 전성기였고, 그때 쓴 400여수의 시가 왕안석의 대표적 작품이라는 점에는 왕안석 연구자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sup>3)</sup>. 이 기간은 한동안 권력의 핵심에서 시대의 격랑을 헤치며 개혁을 추구해온 한 정치인이 권좌에서 물러난 후 자신을 향해 쏟아내는 온갖 비방 등 世波를 뒤로한 채, 고향에 은둔하며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였던 시기였다. 또한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세태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정치에 대한 미련과 세상에 대한 원망, 울분과 悔恨 등 만감이 교차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 1) 왕안석의 作詩 年代에 대한 고증은 매우 곤란하다. 다만 고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존 시 중 가장 초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작품은 〈閑居遣興〉이다. 南宋의 李壁 注를 보면 이 시는 왕안석이 어린 시절 부친을 따라 入京하기 위해 臨川을 떠나면서 쓴 작품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시기는 北宋 景祐 3년(1036)으로 왕안석 16세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시문에 대한 상당한 소질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參閱, 雁湖 李壁 箋註 《王荊公詩》 卷, 三十七, 楊家駱 主編 〈王荊公詩李氏注附沈氏勘誤補正·下〉, 臺北 鼎文書局, 1979.
- 2) 전기 중기의 후기의 3기로 나누고 있는데, 전기는 합축미보다는 강건함을 드러내는 예리한 필치의 시문이고, 중기는 엄격함과 자신감의 색깔은 연해지고 점차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후기는 문장의 정교함이 돋보이고 편안하고 한적함 속에 悲憤을 감추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劉乃昌, 高洪奎 共著, 〈王安石詩文編年選釋〉, 山東教育出版社, 1996, P. 23.
- 3) 왕안석의 시문 창작활동의 변천에 대해 근래 高克勤은 5단계로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高氏도 만년 10년을 제5단계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대부분의 왕안석 연구자들이 金陵 鍾山의 은거기간 중 창작활동에 대해서는 모두 한 분기로 나누고 이 시기를 왕안석 시문학의 전성기로 규정하고 특별한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參閱, 高克勤, 〈王安石與北宋文學研究〉, 復旦大學出版社, 2006, PP. 3-288.

이 시기에 왕안석이 뛰어난 작품을 남긴 것은 이러한 배경과 깊은 상관성이 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된다. 唐代 한산시를 모방하여 지은 20수의 시를 자녀에게 보낸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험난한 인생행로를 달려온 노정객이 만년에 한산시를 의 작한 까닭은 무엇이며, 그리고 왜 이 시들을 자녀에게 보냈을까?

寒山詩는 唐代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唐末 曹洞宗 大師 曹山本寂이 〈對寒山子詩〉를 편찬하면서 禪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五代에 들어와서는 禪寺등에서 參禪의 공구와 같이 인식되면서 한산지열풍이 일어나게 되었다<sup>4)</sup>. 송대에 들어와 한산시 열풍은 禪僧에서 문인사대부 사회로 확산되어, 결과적으로 송대 시문학 특징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고<sup>5)</sup>, 애송의 단계를 넘어 한산시의 模作 현상까지 나타나게 된다. 송대 저명 문인 중 한산시 모작은 왕안석의 20수 외에 蘇軾의 〈擬寒山詩八首〉, 陸游의 〈擬寒山詩100首〉 등이 있다<sup>6)</sup>. 그중 가장 주목을 받은 작품은 바로 왕안석의 〈擬寒山拾得詩20首〉로서, 단연 돋보인다는 평을 받아 왔다<sup>7)</sup>.

지금까지 왕안석 시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지만, 〈擬寒山拾得詩20首〉<sup>8)</sup>에 대해서는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아직 본격적인 선행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부분적으로 왕안석의 불교시 또는 왕안석 말년의 불교적 심성 등에 대한 연구과정에서 20수 중 일부가 산발적으로 인용되는 실정이다. 그리고는 이들 대부분

4) 예를 들면 禪師 天鉢重元은 한산시 중 “卽慕參玄”을 대중들에게 法語로 제시하였고, 靈隱惠淳禪師는 한산시의 “吾心似秋月”를 범어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宗鏡錄』 『碧巖錄』에는 한산시에서 인용된 구절이 꽤 있다. 參閱, 張伯偉, 〈寒山詩與禪宗〉, 〈禪與詩學〉, PP. 302-306.  
 5) 송시의 특징에 대해서는 대체로 송말 嚴羽가 〈滄浪詩話〉에서 제시한 ‘以文爲詩, 以議論爲詩, 以才學爲詩’, 즉 시의 通俗化, 議論化, 典故性의 3대 특징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필자는 송대 시단에서의 한산시의 수용과정과 한산시가 宋詩에 대해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산시가 송시 통속화와 의론화의 두 특징의 형성과정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밝힌 바 있다. 拙稿 〈寒山詩와 北宋詩壇〉에서 논술한바가 있음. 參閱, 〈寒山詩와 北宋詩壇〉, 中國文化研究 14輯, 2009, PP. 181-206.  
 6) 현재 陸游의 100首는 失傳된 상태이다. 한산시의 전파에 대해서는 최근 출간된 崔小敬의 책 〈寒山：一種文化現象的探尋〉(2010. 4. 中國社會科學出版社刊)의 제4절 〈寒山詩的傳播與寒山体〉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7) 劉克莊은 “半山大手筆, 擬二十篇殆過之”라며 높이 평가하고 있다. 參閱 劉克莊, 〈後村詩話·續集〉, 卷二.  
 8) 이하 〈擬寒山拾得詩20首〉에 대해서는 〈擬詩20首〉라고 축약하여 서술함.

분은 작품에 보이는 불교용어와 불교적 교리를 근거로 〈擬詩20首〉를 불교시로 규정하거나 아예 종교시의 영역 속에 설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擬詩20首〉가 자녀에게 보낸 편지 속에 별도로 보낸 시문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목적의식 아래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단순한 종교시라고 보기에는 석연치않다.

작품에는 작가 의식이 농축되어 있음은 不問可知이다. 그렇다면 〈擬詩20首〉에도 왕안석 내면의 의식이 직간접적으로 투영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정성을 쏟았던 개혁이 무너지고, 어제의 동지가 등을 돌리고 자신에 대한 비판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자녀에게 보낸 시에는 자신의 종교적 심성에 대한 표출 외에도 세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담겨있을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어느 작품 못지않게 〈擬詩20首〉에는 왕안석 말년의 내면 의식이 깊이 함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寒山詩를 모방한 것은 왕안석 또한 한산자와 같이 시의 형식을 빌려 자녀에게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에는 당시 왕안석 내면의 심정과 悔恨 등을 토로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추론된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추론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擬詩20首〉를 전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선 집필 과정과 動機, 20수의 구성 상황과 형식 등을 살피고, 각 시의 내용을 주제와 내용에 대한 파악을 통해 작품 속에 담겨있는 작가의 메시지를 찾고자 한다. 아울러 〈擬詩20首〉와 寒山拾得詩의 비교를 통해 양쪽의 연관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擬詩20首〉가 대부분 불교적 색채가 농후한 작품인 점과 관련하여<sup>9)</sup>, 그가 말년에 불교에 심취했던 원인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모색은 결국 왕안석 말년의 심경과 의식의 진정한 이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를 통해 왕안석 말년의 문학에 대해서도 이해의 새로운 지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9) 蘇軾은 왕안석에 대해 젊어서는 孔孟을 공부했고 늙어서는 瞿聃을 스승으로 삼았다고 말한바 있다(少學孔孟, 晚師瞿聃). 參閱, 蘇軾, 〈蘇軾文集〉卷38, 第1077頁, 〈王安石贈太傅〉, 中華書局, 1986年版. 이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왕안석 말년의 의식을 불교적 관점에서만 인식하는 경향에 대한 반론도 있다. 參閱, 李春桃, 〈論王安石晚期思想並非崇佛〉, 求索, PP. 234-235, 2004/5. 그러나 그가 불교에 깊이 심취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말년의 작품 대부분을 불교적 관점에서만 인식하려는 경향은 지나친 단순화라고 할 수 있다.

## 2. 退隱과 詩作動機

### 1) 퇴은시의 상황

중국 문인사회에서 정치와 문학은 대체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정계에서 활동하면서도 틈틈이 시문을 남기고, 퇴직이후 더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는 것은 사대부사회의 일반적인 문화현상이다. 다만 중국역사에서 왕안석은 매우 독특한 인물이다. 왜냐하면 역사상 어떤 문인도 왕안석만큼 정국의 핵심적 위치에서 오랫동안 한 시대를 주도한 인물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청년시절 관직에 진출한 이후, 거의 한 평생 국가 개혁에 몰두하고, 결국 국가와 운명을 함께 하였다. 그는 많은 시문을 남겼지만 젊은 시절엔 스스로도 문인보다는 정치가로 자처하였다. 文에 대해서도 〈上人書〉에서 文은 禮教治政의 도구로서, 補世가 목적임을 분명히 하였다.<sup>10)</sup>

정치가로서 대대적 개혁을 주도하면서, 그의 인생은 내내 세인의 주목대상이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의 정치적 진퇴에 따라 개혁의 성패가 결정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개혁들이 허물어지고 新法 대부분이 취소되었다. 그는 이같은 한탄스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생을 마감한다. 결국 한 정치가의 재직 기간과 국가 개혁의 시효가 같았던 셈이다<sup>11)</sup>. 따라서 당시 많은 논쟁들도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기 보다는 왕안석 개인을 둘러싼 인물 논쟁의 양상으로 흘러

10) 〈上人書〉에 보면, “嘗謂文者, 禮教治政云爾. .... 且所謂文者, 務爲有補於世而已矣.” 參閱, 王安石, 〈王臨川全集〉, 〈上人書〉, 世界書局., p. 488.

11) 왕안석의 추진한 주요 개혁은 크게 재정과 국방 그리고 교육의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재정개혁에는 均輸法, 青苗法, 農田水利法, 免役法, 市易法, 免行法, 方田均稅法 등으로 새로운 재원 개발을 통해 국고재정의 확충을 시도하였고, 군사적으로는 將兵法, 保甲法, 保馬法, 軍器監設置, 그리고 교육은 과거개혁과 太學의 改革 등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은 일정 부분 기득권과 이해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그를 지지하던 신종의 우유부단과 변심으로 1074년 재상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다음해 1075년 2월 다시 재상에 복직되었으나 개혁세력 내부 분열과 건강악화, 그리고 6월 아들의 사망 등에 큰 충격을 받고 부임 8개월 만에 다시 파직하고 江寧知府에 부임했다가 다음해(1076) 6월 이마저 사직하고 은거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후(1086.4)에 세상을 떠난다. 參閱, 周寶珠 陳振主編, 〈宋史〉, 人民出版社, 1985, pp. 177-213.

갔고, 이 과정에서 그는 司馬光 文彥博 蘇軾 등 당대 영향력 있던 많은 문인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sup>12)</sup>.

왕안석이 1076년(熙寧9年) 2차 罷相이후 江寧 鍾山에 은거하지만, 1074년 1차 사직을 즈음하여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크게 축소되었다. 비록 1년 후 다시 재상직에 올랐으나, 그의 정치적 입지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다. 그 이유는 우선 자신을 지원했던 신종의 변심이 주요 원인이지만<sup>13)</sup>, 개인적으로 왕안석에게 가장 큰 충격은 당시 자신을 돕던 장남 王雱의 죽음이었다, 이밖에 자신이 천거했던 呂惠卿이 자신을 敬遠하고, 나아가 개혁과의 분열로 더욱 입지가 약화된 상황도 충격이었다. 따라서 사대부사회의 주류가 자신의 반대세력이 되고 동시에 개혁파로부터도 소외된 상황에서 장남마저 세상을 떠나자 사실상 고립무원의 상태에 처한다. 결국 1076년 57세의 나이로 재상직에서 물러나 고향에서 은거를 시작한다. 사직 직전 남긴 〈越人以幕養花.遊其下〉에는 당시 왕안석의 절박한 심정이 묻어난다.

12) 왕안석의 반대자들을 보면, 呂公著 司馬光 歐陽修 富弼 韓琦 文彥博 등 조정의 원로집단인데, 이들 중 司馬光 歐陽修 蘇軾 程顥 등은 한때 왕안석의 지지자였다. 이들은 대부분 왕안석의 성격적 이유를 들어 결별하지만, 사실은 관료중심의 송대 행정시스템을 개혁하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 원인은 왕안석이 개혁 자체에만 중시한 나머지 개혁 집행자들의 성품 등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고, 개혁의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에 집착한 나머지 기존 관료조직을 활용보다는 별도의 관료조직을 구성하려 하였고, 또한 三司의 재정관을 제상이 직접 관할하도록 하는 등 자신의 직권을 강화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부터 관료조직은 신법파와 구법파로 분열되기 시작하고 점차 당쟁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결국 왕안석의 반대세력들은 개혁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왕안석에 대한 반대의 경향을 보이게 되는 측면이 있다. 參閱, 鄭士元, 〈國史論衡〉, 第二冊(上), 香港 波文書局(홍콩), 1979, PP. 692-696.

13) 당시 황제였던 신종과 왕안석은 부국강병의 원칙에 있어서는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였다. 그리고 왕안석의 재정개혁은 송대의 재정상황을 크게 호전시킴으로서 큰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신종은 사마광 등 관료세력과 호족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원치 않았던 관계로 왕안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음으로서 왕안석은 고립상태에 직면하고 결국 사직을 청원하게 된다. 사직이후에도 신법은 개폐를 거듭하며 기본적으로 신종에 의해 계속 시행되었다. 그러나 왕안석이 죽기 한달 전 신종이 사망하고 어린 아들 철종이 즉위하면서, 그동안 개혁을 반대했던 태후가 섭정하자 왕안석의 신법은 전면적으로 폐지되기에 이른다(元祐更化). 參閱, 周寶珠 陳振 主編, 〈宋史〉, PP. 208-213.

아직 붉은 기색이 남아있거늘 벌써 서글프구나,  
 애처로워 다시 고개 돌려 바라보니 빈 가지 뿐이로다.  
 당장 신세가 무사하다고 헛갈리지 마라,  
 자고나면 춘풍이 나쁘게 불어올 때니라.<sup>14)</sup>

윗 시에서 殘紅(붉은 기색)은 아직 남아있는 개혁조치를 의미하고, 空枝(빈 가지)는 꺾이기만 남은 개혁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 연에서는 이마저도 머지않아 사라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는王安石이 더 이상의 개혁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음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사직 이후 닥쳐올 결과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사직은 본인 의사라기 보다는 물러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결국 자의반 타의반의 사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sup>15)</sup>.

## 2.) 불교에 대한 심취

魏晉이후 유가사상 외에 불교와 도교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문화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唐이후 송대에 들어오면서 문인들은 儒家 못지않게 불교에 대한 이해 또한 매우 깊었다.王安石도 불교에 대해 광범위한 지식을 축적하였는데, 이는 훗날 그가 많은 불교시를 남긴 것도 이러한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sup>16)</sup>. 관직에 있을 때부터 여러 불교시를 남겼지만, 退隱이후 더욱 심오한 불교시를 남긴 것은 만년의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은 충분히 사료된다.

金寧으로 퇴거한 후 약 10년간王安石은 학문적으로 3가지의 작업을 한다. 하나는 문자학 관련 연구서인 〈字說〉의 편찬과, 〈維摩詰經〉과 〈楞嚴經〉등 佛經의 주해, 그리고 〈三經新義〉의 改修 등이다. 이는 退隱이후 그가 불교연구에 매우 정진했음을 보여준다. 이밖에도 그는 장기간에 걸친 여러 고승들과의 交遊와 잦은

14) “尚有殘紅已可悲，更憂回首只空枝。莫嗟身世渾無事，睡過春風作惡時。”

15)王安石의 사직은 형식적으로는 아들 王雱의 사망이후 神宗에게 수차의 사직을 주청한 이후 황제의 재가를 받아 이루어진 까닭에 공식적으로는王安石의 사직의사를 신종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6) 倪祥保, 〈略論王安石的佛詩〉, 文學遺產, 2000年 第3期, P. 132.

사찰 방문 과정에서 贈詩 또는 題詩한 경우도 많았다.

다만 그가 退隱이후 특별히 불교에 심취한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당시의 정치 현실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시 〈讀有摩經有感〉<sup>17)</sup>에서, 당시 왕안석은 자신이 공들여 쌓은 수많은 개혁들이 泡沫처럼 또는 바람처럼 사라지고 결국 썩어 가는 기막힌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전혀 저항할 수도 없는 암담한 현실에서 결국 그는 불교를 통해 자위하고, 현실에 대한 인정과 수용 또한 불교의 교리에서 근거를 찾게된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불교의 ‘萬事皆空’ 사상에 근거하여, 세상만사가 모두 꿈이라고 인식하며 자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sup>18)</sup>, 또한 만년에 그에게 화해를 요청하는 呂惠卿의 편지에 대한 답신에서도 이러한 징후를 엿볼 수 있다. 답신 중 “인생사란 꿈속의 幻影에 잠겨있는 것과 같으니 마음을 씻어내지 않고 망상에 빠지게 되면 역시 슬프지 않겠는가<sup>19)</sup>”라며 金剛經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불교를 통해 자신의 처연한 심정을 정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退隱이후 특별히 불교에 대해 깊이 심취한 것은, 사직 이후 겪은 정신적 고통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록 불교에 심취했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현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던 것 같다. 만년에 쓰여진 시에서는 그가 불교를 통해 정신적 안정을 이루고 있음을 주장하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현실에 대한 깊은 고뇌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대표적인 불교시라고 평가받아온 〈擬寒山拾得詩20首〉는 윤회, 인연, 해탈 등 불교 교리를 주제로 한 작품이 많지만,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과 회한이 그대로 묻어나는 작품 또한 적지 않음은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한다<sup>20)</sup>.

17) “身如泡沫亦如風。刀割香塗共一空。宴坐世間觀此理。維摩雖病有神通。”

18) 張煜, 〈王安石與佛教〉, 聊城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4年 第1期, P. 64-65.

19) 金剛經을 인용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觀身與世, 如泡夢幻, 若不以此洗心, 而沉于諸妄, 不亦悲乎?”

20) 예를 들면, 〈擬詩20首〉중 제10수에 보이는 ‘自悔와 ‘分別心’등의 시어에는 당시 왕안석의 심리적 상심과 정서적 동요가 함축되어 있다고 추정된다.

## 3) 가족과 詩作 動機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王安석의 재상직 사직 배경에는 반대세력의 저항 또는 개혁파의 내부 분열 등 정치적 배경 외에 가족적인 요인도 중요한 원이다. 1차 사직 전에는 동생 王安國이 사망하고, 2차 사직 직전에는 장자 王雱이 세상을 떠났다. 특히 장남의 죽음은王安석에게 무엇보다도 큰 충격이었다. 당시 33살의 王雱은 일찍이 진사에 급제하여 天章閣侍制에 올라 중앙 정계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었고, 또한 자신의 곁에서 개혁을 보좌하여 든든한 조력자이기도 했다. 왕방의 사망 이후 그는 신중에게 辭意를 표하고<sup>21)</sup>, 그로부터 4개월 후에 재상직에서 사직한다.

王安석은 본래 빈곤한 가문 출신으로 그의 집안은王安석과 그 형제들이 과거에 급제하면서 비로소 명문가로 등장하게 된다. 부친 王益은 일찍 사별한 부인과 2남, 재혼한 부인과 5남8녀, 총 7남8녀를 두었는데王安석은 후처 소생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곤궁한 가정이었으나 가족애가 지극하였고,王安석이 1042년 과거에 급제했을 때는 이미 부친이 작고하여 그가 사실상 가족 부양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특히 그는 형제자매의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후에 3명의 형제가 진사에 급제하였고, 자매 역시 詩文 능력이 출중하였다.

그리고王安석은 부인 吳씨와 2남2녀를 양육하였다. 자녀에 대해서도 특별히 교육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두 아들과 두 딸 모두 시문에 능하였다. 그는 자주 가족들에게 서신 형식의 시문을 써서 보내곤 하였는데, 두 딸이 출가한 후에도 그들에게 각각 ‘寄吳氏女子’, ‘寄蔡氏...’ 등 시문을 써서 보내는 등<sup>22)</sup>, 자녀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장녀 吳氏女는王安석이 사직한 재상직을 繼任한 吳充의 아들 吳安持의 부인이었다. 그런데 吳充과 남편 吳安持는 정치적으로 보수파에 속하는 인물로서王安석과는 다른 정치적 입장에서 있었다. 따라서 장녀는 친정과 시가

21) 〈續資治通鑑續編〉, 卷278, 熙寧九年, 十月丙午.

22) 큰딸은 재상 吳充의 아들 吳安持와 혼인하여 吳氏女子로 불렸고, 둘째 딸은 蔡京의 동생 蔡卞과 혼인하여 蔡氏女子로 불렸다. 吳充과 吳安持는 정치적으로 보수파에 속해王安석의 개혁에 대해 소극적이고 이견을 가진 인물이고, 반명 蔡京과 蔡卞은 개혁파에 속하는 인물로서王安석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다.

사이에서 입장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왕안석도 큰딸의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장녀 역시 부친이 낙향하자 부친에 대한 염려로 늘 걱정한다. 그리고 蔡氏女의 남편 蔡卞은 형 蔡京과 더불어 왕안석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개혁과 인물이었기 때문에 왕안석은 작은 딸 보다는 큰딸에 대해 보다 애뜻한 심정이었다. 당시 왕안석과 큰딸 사이에는 서로를 위로하는 잦은 서신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擬詩20首〉는 바로 이러한 서신이 오가던 중 왕안석이 첨부해 보낸 작품이다. 먼저 왕안석이 보낸 〈寄吳氏女子〉를 보면:

큰 딸아이가 날 보지 못한지, 이제 7년째 되어가네  
달마다 거르지 않고 집에 편지하니, 늘 친정 오는 것과 다를 바 없구나  
네 남편은 높은 관직을 맡았으니, 네 아들 역시 높이 오를 것이라.  
사내가 이미 학문을 배우기 시작했으니, 앞길 더욱 창창하리라.  
딸은 다시금 여자 할 일 잘 알고, 유순하여 규범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 있는 京東을 떠난 이래, 네 작은 아버가 계속 조정에 있고,  
막내 아버는 자주 왕래하여, 매번 너희 좋은 소식을 들었노라.  
시집가서 원하는 바를 이미 품었으니, 누가 너처럼 바램을 다 이루랴?  
나와 네 어머니는 다행히도 탕약 고약 잠시 복용을 멈추고 있고,  
언덕의 園庭에서 일품 지위를 받아 이졸들을 부릴 수 있으며,  
고량진미로 저녁을 먹고, 편안히 걷다 두 말이 나란히 끄는 마차도 타고,  
산간벽지 아무 곳이나, 마음 닿는 대로 여러 곳을 지나다니고 있거늘,  
너는 어찌하여 걱정근심하며, 편지마다 눈물을 흘린다 하는가?  
집 주위에 내가 심어놓은 나무들이, 세월 가면 더욱 아름답게 우거지리라.  
그 중 松竹이 특히 무성해지고, 오동나무 또한 해를 가려 그늘지게 하리라.  
박하가 가득히 아름답게 꽃피우고, 도랑 따라 넘치도록 촘촘히 널려있으니,  
손자들 기꺼이 놀러올 만하고, 누군가는 냇가에 작은 배 없음을 아쉬워하리라. 23)

23) “伯姬不見我，乃今始七齡。家書無虛月，豈異常歸寧。汝夫綴卿官，汝兒亦播延。兒已受師學，出藍而更青。女復知女功，婉孌有典刑。自吾捨汝東，中父繼在廷。小父數往來，吉音汝每聆。既嫁所願爽，孰如汝所丁。而吾與汝母，湯炭幸小停。丘園祿一品，吏卒給使令。膏粱以晚食，安步而輶駟。山泉阜壤間，適志多所經。汝何思而憂，書每說涕零。吾處所封殖，歲久愈華菁。豈特茂松竹，梧楸亦冥冥。芰荷美花實，瀾漫爭溝澗。諸孫肯來遊，誰謂川無舲。”

윗글에는王安石의 자녀에 대한 깊은 애정이 생생하게 묻어난다. 장녀 또한 적어도 한달에 한번은 꼭 부모의 안부를 걱정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자주 서신왕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당시 장녀는 부친에 대한 걱정으로 눈물 마를 날이 없었던 듯하다. 이는 그녀가 開封에서 재상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보수파 정치인의 아내로서, 날로 부친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어가는 중앙정치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이해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걱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명하다.王安石도 장녀의 이런 처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장녀를 안심시킬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詩文 형식의 서신에서王安石은 자신의 안부와 근황 등을 자세히 밝히고, 아울러 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묘사하며 자신은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고 있음을 애써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王安石은 이 편지 뒤에 추가로 〈擬詩20首〉를 보낸다. 따라서 〈擬詩20首〉는 〈寄吳氏女子〉와는 별도로 쓴 것으로 보이지만, 시기는 서신을 보낼 즈음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寄吳氏女子〉에서王安石이 개봉을 떠나江寧에 온지 7년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擬詩20首〉은 대개 1083년경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는 대강王安石 서거 3년 전 쯤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다면 〈擬詩20首〉는王安石 말년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王安石은 〈擬詩20首〉를 첨부한 〈寄吳氏女子〉의 末尾에 덧붙인 追申에서, 五言絶句의 詩文형식으로 〈寄吳氏女子〉와 〈擬詩20首〉를 보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잠시 너에게 내 시를 보게 함은, 이곳 산하의 아름다움을 알리려 함이요,  
 끝에 한산시 모작이 있음은, 네 이목을 반짝 깨우치려 함이라.  
 따라서 네 동생에게도 전해주어, 동생도 심령이 맑아지게 하거라.<sup>24)</sup>

24) “姑示汝我詩, 知嘉此林峒, 未有擬寒山, 覺汝耳目煇, 因之授汝季, 季也亦淑靈.” 참고적으로 전통적으로 형제자매의 長幼의 구분을 伯仲叔季로 나누어 구분한다. 따라서 〈寄吳氏女子〉 본문에 보이는 伯姬는 장녀인 吳氏女를 칭하는 것이고, 追申에 보이는 季는 차녀인 蔡氏 여자를 지칭한 것이다.

위 추신에서 〈寄吳氏女子〉는 단순히 자연풍광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의도로 썼고, 반면 〈擬詩20首〉는 자녀들의 의식을 깨우치려는 의도로 썼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擬詩20首〉가 〈寄吳氏女子〉등 자연을 노래했던 일반적인 시와 다른, 분명한 의도와 목적으로 썼음을 의미한다. 〈寄吳氏女子〉는 실제로 일상생활과 주변의 자연환경 등에 대한 내용만 있고, 일체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적 함의가 없으며, 또한 만년 왕안석의 佛心이 느껴지는 어떠한 종교적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반면 〈擬詩20首〉은 왕안석이 장녀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자녀들 의식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 썼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부분 불교 교리와 불교적 관점에 의한 권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동시에 복잡다단한 세상사와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擬詩20首〉가 대부분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특별한 목적의식으로 쓰여진 시문이 단순히 자신의 종교적 심성만을 전하려고 했다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 그보다는 왕안석이 만년에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불교의 교리와 연결시키고 있거나, 세인들에게 불교적 교리를 통해 자신의 심정과 주장을 전달하려는 시도일 것으로도 의심된다. 분명한 점은 이들 시문에는 왕안석 만년의 심경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을 것임은 충분히 사료된다.

### 3. 擬寒山拾得詩20首의 내용 분석

#### 1) 구성과 주제

##### (1) 구성

〈擬詩20首〉의 作詩 과정은 불확실하나 모든 시가 제목이 없이 제1수에서 제20수까지 숫자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20수 모두 불교 교리에 대한 설명이나 사람들에게 권계하는 偈頌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擬詩20首〉 모두에서 佛性,

禪理 또는 禪趣가 드러나지만,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부류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 한 부류는 제1수에서 제7수까지의 전반부 7수로서, 7수가 대체로 불교의 교리, 특히 禪理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한 부류는 제8수에서 제20수까지의 후반부 13수로서, 이들 13수는 대체로 불교사상에 의거하여 중생을 권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다시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모든 시는 한수 한수 각각 독립적인 작품도 있고, 내용은 다르지만 주제에 있어서 前後의 연속성이 드러나는 작품도 있다. 이는 〈擬詩20首〉가 일정한 기획 아래 連作詩 형식으로 쓰여진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본다.

## (2) 主題와 素材

〈擬詩20首〉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반부 7수는 모두 前後의 연결성이 현저하게 드러난다. 제1수와 제2수는 두 시 모두 윤회를 주제로 하고 있고, 詩語 역시 인간에 의해 사역당하는 소와 말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두시는 주제와 시어를 중심으로 전후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제3~5수까지의 3수는 모두 불교의 중요 개념인 色卽是空, 空卽是色을 주제로 하고 있어 상호 긴밀한 연결성이 보인다. 그리고 제6~7수의 2수의 경우, 제6수는 主題語인 ‘這个’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채 마치 퀴즈문제처럼 개념에 대한 주변 설명만 하고 있다. 그런데 제7수에서 보면 獨悟, 즉 不立文字와 直指人心을 추구하는 禪宗의 교리 등을 설명하면서 ‘這个’의 해답이 바로 불교 교리임을 암시하고 있음을 볼 때 두시는 전후 연결성이 분명하다.

그러나 후반부의 13수는 주제에 있어서는 전반부에 비해 전후 연결성이 미약하다. 그러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경우, 부분적인 연관성이 엿보인다. 즉 제8수에서 제10수까지의 3수와 제11~12수의 2수, 제13수에서 제15수까지의 3수, 그리고 제16~17수의 2수는 상호 연관성이 있는 반면, 나머지 제18에서 제20수까지의 3수는 각각 독립적인 주제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상호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8~10수까지의 3수의 경우, 제8수와 제10수 두시는 모두 일반 중생을 의미하는 張三 李四를 소재로 제시하고, 중생들의 속 좁음,

망상과 분별로 인한 愚를 지적하며 이에 대해 勸戒하고 있는데, 그 중간인 제9수에 중생들의 넓은 여유로움과 智에 대한 권면의 내용을 넣음으로 권계의 뜻이 더욱 드러나는 효과를 거두도록 시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제11~12수의 경우, 제11수에는 시어에 沒根裁를, 제12수에는 立根裁를 사용하여 두시가 서로 대비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13~15수까지의 3수의 경우, 제13수에서는 我와 無我, 死와 活, 제14수에서는 의미전달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嫌과 愛, 早와 晚, 好와 惡, 제15수에서는 福과 罪, 苦와 樂, 明과 昧, 中과 外 등 상반된 개념을 詩語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연결성이 성립된다.

또한 제16~17수의 경우, 두 시에는 모두 賊, 客, 貧 등 비슷한 계층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앞의 제13~15수까지의 방식과 정반대의 방식인 점을 고려하면, 크게는 제13수에서 제17수까지도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18~20수까지의 3수는 상호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3수는 각각 독립적인 작품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 3수는 왕안석이 별도로 알리고 싶은 내용이거나 <擬詩20首>의 결론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제18수는 사대부의 명실상부함을 강조하고 있고, 제19수는 진정한 佛者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이것이 왕안석이 자녀에게 전하고자하는 자신의 권면이면서, 동시에 만년의 생각이 깊이 함축된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 제20수는 지옥형벌의 고통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 <擬詩20首>의 제1~2수에서 불교의 윤회사상을 화두로 제시하고, 마지막인 제20수에서 윤회과정에서 발생하는 형벌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음은 <擬詩20首>가 처음부터 끝까지 상호 연관성이 깊음을 암시한다. 이 과정에서 세상사에 대한 是非를 논하고 아울러 자신의 입장 표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擬詩20首>의 상호 연관성은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연작시가 아님을 감안할 때, 20수가 일정한 기획아래 순서대로 쓰여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 보다는 주제를 중심으로 몇 수씩 써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擬詩20首>에서 제시된 주제는 총 10개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제에 따라 1~3수씩 作詩한 것으

로 보인다.

## 2) 模擬 樣相

### (1) 의작 양상

한산시와 宋詩의 관계는 다양한 영향관계가 있겠으나 한산시가 송시의 특징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부분은 송시의 통속화와 의론화이다<sup>25)</sup>. 詩의 통속화는 詩作에 있어서 속어의 사용을 통한 ‘以俗爲雅’의 詩境을 의미하는데, 송대에 들어와 선종이 크게 발전하면서 詩壇에서는 俗語 사용과 禪理 설명의 佛敎詩가 유행하게 된다. 그리고 詩의 議論化는 시문 형식을 통해 특정 주제에 대한 시인의 주장이나 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는 宋代 사대부사회에서 유행했던 議論文化의 산물이다.

시의 통속화는 우선 민중의 일상생활에서 소재를 찾고, 사실적인 표현방식을 통해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징이 있다. 〈擬詩20首〉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시에서 일상적 생활 중 흔히 접하는 물체나 자연현상 등을 시의 소재로 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牛 馬 灰 土 火 鋸 鎚 袴 帽 薪과 電 乾地 平地 등 동물과 물건, 그리고 자연현상을 소재로 삼고 있고, 또한 흔히 볼 수 있는 索錢과 燒炭 등이 시의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불특정 인물의 지칭이 많다. 大丈夫도 있지만, 일반 서민들을 지칭하는 다양한 인칭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凡夫 衆生 無眼人 女人 男子 季生 李四 張三 등이다. 또한 喜歡 快樂 甚麼 伊謾 등의 백화체를 많이 사용하는가하면, 1~5까지의 숫자를 배열하는 방식으로 作詩하는 등 시어와 소재를 일상 속에서 찾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擬詩20首〉에 보이는 시의 통속화 경향은 기본적으로 한산시의 직접적인 영향의 결과임은 굳이 부연할 여지가 없으며<sup>26)</sup>, 왕안석 스스로 ‘擬詩’라고 한

25) 拙稿, 〈寒山詩와 北宋詩壇〉, 中國文化研究, 14집, PP. 193-202, 2009. 6.

26) 拙稿, 〈上揭文〉, PP. 193-199.

까닭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시의 의론화의 경우, 議論詩는 분명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제어를 제시하고, 제시된 주제를 중심으로 시인의 주장을 펼친다. 〈擬詩 20首〉를 보면, 대부분의 시가 불교 교리에 대한 설명이거나, 권계하는 偈頌의 성격의 작품이다. 그러면서 모든 시에는 주제가 각각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제1~2수는 윤회, 제3~5수는 “色卽是空, 空卽是色”, 제6~7수는 佛法과 禪理, 제8~10수는 망상과 번뇌, 제11~12수는 중생의 삶, 제13~15수는 집착과 해탈, 제16~17수는 분별, 제18수는 명실상부한 사대부, 제19수는 진정한 佛者, 제20수는 지옥과 형벌을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의론화 과정에서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권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詩語에 衆生 禪門裏 刀山 灰河 澹魔羅 頭陀 輪迴 地獄 鑊湯 四天王 獻鉢 등의 불교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자신의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我, 汝, 客, 賊 등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한산시가 송대 문단에서 실천적 典範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하다<sup>27)</sup>.

寒山拾得詩와 〈擬詩20首〉를 비교한 결과, 〈擬詩20首〉가 한산습득시의 특징시를 베끼거나 詩句를 그대로 차용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왕안석이 ‘擬詩’라고 한 것은 한산시의 특징, 즉 한산시가 생활언어의 詩語化를 통한 통속성, 그리고 교화와 권계의 분명한 메시지 전달을 위한 목적성을 추구했던 한산시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자신도 사회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남기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 (2)의작 방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擬詩20首〉에는 한산시와 비슷한 느낌의 시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이 시어와 소재의 유사성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왕안석의 〈擬詩20首〉 제5수를 보면:

27) 拙稿, 〈上揭文〉, PP. 199-202.

만일 꿈이 꿈이라 한다면 잠 깨 후에 응당 기억이 없을 것이요..  
만일 꿈이 꿈이 아니라 한다면 반드시 진짜 실체가 있을 것이라  
태워버리는 것은 陽이 자초하고 빠져드는 것은 陰이 자초하니,  
너로 하여금 일찌기 가위 놀려 놀라게 하니 어찌 편한 잠을 잘 줄 알리오.<sup>28)</sup>

윗 시와 아래 拾得詩를 비교해 보면,

어젯밤 꿈 한번 꾸었는데, 꿈에서 一團의 꿈을 보았노라  
아침에 와서 꿈 이야기 하려는데, 머리를 들다 또 다시 꿈을 보았으니  
지금 꿈이 꿈이 된 것인가, 다시 꿈이 꿈이 된 것이던가  
붕 떠있는 인생을 생각해보니, 모두 같은 꿈 속에 있구나.<sup>29)</sup>

왕안석의 시는 불교의 '空卽是色'에 대한 서술로서 色은 눈에는 보이지만 구체적 실체는 아니어서 음양이 만물의 조화를 일으키듯이 緣起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실체화 된다는 내용이다. 아래의 습득시도 주제와 소재에 있어서 왕안석의 시와 매우 유사함을 볼 수 있다. 특히 두 시 모두 夢과 꿈을 시어로 사용함으로써 마치 한 사람의 작품처럼 느껴진다. 다만 시의 전개과정에서 왕안석의 시는 상부의 2연 까지만 습득시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왕안석이 한산습득시 중 일부 구절을 援用하는 방식으로 의작하였음을 시사한다.

〈擬詩20首〉의 擬作 양상은 시어나 소재에서 보다 시의 내용에서 유사성이 보이는 경우가 더 빈번하다. 예를 들어 제7수를 보면;

나는 만권의 책을 다 읽어 천하의 이치를 모두 이해하노라.  
智者는 그 스스로 알 것이나, 어리석은 자는 그 누가 믿으리요.  
기특하도다 한도인(閑徒人)이여, 三句의 經典 속에서 벗어났구나  
스스로의 근본이 다른 곳으로부터 생겨남이 아님을 홀로 깨닫나니.<sup>30)</sup>

28) “若言夢是空, 覺後應無記. 若言夢非空, 應有眞實事. 燔燒陽自招, 沈溺陰自致. 令汝嘗驚駭, 豈知安穩睡.”

29) “昨夜得一夢, 夢見一團空. 朝來擬說夢, 擧頭又見空. 爲空是夢, 爲夢是空. 想計浮生里, 還同一夢中.”

30) “我讀萬卷書, 識盡天下理. 智者渠自知, 愚者誰信爾. 奇哉閑道人, 跳出三句裏. 獨悟自根本, 不從他處起.”

한산시를 보면;

가장 어리석은 자는 내 시를 읽고 알지도 못하면서 비웃고 비방하며  
중간의 평범한 자는 내 시를 읽고 깊이 생각하고 아주 중요하다 말하고  
최고로 현명한 자는 내 시를 읽고 반기며 만면에 웃음을 짓노라.<sup>31)</sup>

위 두 시는 일견 별로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시 모두 지식인이 범하기 쉬운 독서인의 함정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주제와 내용 역시 거의 유사하다. 특히 왕안석의 시 제2연까지는 한산시와 내용이 매우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즉 왕안석의 시에서는 ‘萬卷書’를 중심으로 智者와 愚者를 구분하고 있고, 한산시에서는 ‘我詩’를 중심으로 愚와 智者를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또 다른 작품에서도 보이는데, 〈擬詩〉제17수의 3-4연을 보면;

또 한 가난뱅이가 있는데, 늘 배는 볼록하게 나와 있어,  
있는 것 같아도 모으지 않고, 없는 것 같아도 도모치 않더라.<sup>32)</sup>

이 시는 경제적 빈곤과 정신적 빈곤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와 유사한 주제와 내용의 시가 습득시에도 보인다. 拾得詩를 살펴보면;

몸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요 정신 가난한 것이 비로소 가난함이요  
몸은 가난해도 도를 지킬 수 있으면 貧道人이라 부르리라.  
정신이 가난하면 지혜도 없으니 결과 아귀의 귀신을 받게 되나니  
아귀를 빈도와 비교하면, 빈도인만 못하나니....<sup>33)</sup>

위 두시 역시 외견상 특별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두시 모두 주제가 貧道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특히 습득시의 첫째 연은 〈擬詩〉제17수의

31) “下愚讀我詩，不解却嗤訕。中庸讀我詩，思量云甚要。上賢讀我詩，把著滿面笑。”  
32) “復有一種貧，常時腹彭亨。若有亦不畜，若無亦不管。”  
33) “身貧未是貧，神貧始是貧。身貧能守道，名爲貧道人。神貧無智慧，果受餓鬼身。餓鬼比貧道，不如貧道人。”

모티브로 의심될 만큼 위에 인용한 두 시의 첫째 연은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에 인용한 습득시는 왕안석의 다른 작품에서도 모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擬詩〉제6수의 5-6연을 보면:

만일 안목 없는 사람에게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곧 거기에 매달려 구속당하고, 귀신 굴속에서 배고픔이나 참아내리.<sup>34)</sup>

윗시의 無眼人(안목없는 사람)은 拾得詩의 3연에 보이는 神貧无智慧와 사실상 같은 의미이다. 또한 왕안석의 시 끝부분에서 無眼人은 귀신 굴속에서 배고플 것이라는 서술과 습득시의 셋째 연에 보이는 餓鬼를 몸에 받을 것이라는 서술 역시 상통한 개념이다. 이렇게 볼 때 〈擬詩〉 제6수와 제17수 모두 습득시와 깊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위에 인용한 습득시에 보이는 ‘貧道人’라는 詩語와 역시 바로 위에 인용한 제7수의 셋째 연에 보이는 ‘閑道人’이라는 시어는 습득시에서의 ‘貧道人’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왕안석은 습득시에서 착안하여 ‘閑道人’이라는 시어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습득시의 창조적 模倣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밖에 〈擬詩〉제9수에 보이는 “有一卽有二, 有三卽有四. 一二三四五, 有亦何妨事.”와 한산시의 “五言五百篇, 七字七十九, 三字二十一, 都來六百首”는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숫자를 중심으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擬詩20首〉가 비록 寒山拾得詩의 모방이라고 하지만, 단순한 베끼기나 차용이 아님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방보다는 寒山拾得詩의 문학적 정신의 계승 또는 창조적 모방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으로 본다.

### 3) 왕안석의 晩年 心境과 메시지

사직이후 왕안석은 半山에 묻혀 살면서 문자학 연구와 불교에 심취하여 佛理를 탐구하는 한편 자연을 벗 삼아 산수를 감상하는 등 시종 자연에 귀의한 야인의

34) “若問無眼人, 這箇是甚麼. 便遭伊纏繞, 鬼窟裏忍餓.”  
289

모습을 보였다. 더 이상 문학의 목적을 補世라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고아 하면서도 담백한 정취가 담긴 많은 시를 남겼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집안 일상사나 불교에 대해서만 논할 뿐 정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생을 험난한 정계에서 질풍노도처럼 살아온 노정객에게 과연 이것이 가능했을까? 분명히 애써 정계를 잊으려했고, 또한 정계로부터 잊혀지고 싶었겠지만, 습관의 동물인 인간에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특히 눈앞에서 전개되는 변법에 관한 시시비비와 훼손에 대해 침묵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충분히 사료된다.

退隱이후 쓴 시 〈杖藜〉<sup>35)</sup>에서, 스스로도 비록 초야에 묻혀 지내지만 꿈에서 堯와 桀의 시시비비 다툼이 나타나는 것은 國事에 대한 관심이 습관처럼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1082년에 지은 〈六年〉<sup>36)</sup>에는 退隱이후 6년에 대한 소회가 담겨있는데, 여기서 6년 동안 거친 세파를 떠나 멀리 왔음에도 여전히 ‘西望國門하고 九天宮闕을 잊지 못하는 복잡한 심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밖에 왕안석의 만년시에서는 이러한 분노와 우울한 심정이 표출된 시가 적지 않다. 〈鍾山閑事〉<sup>37)</sup>에 보이는 ‘水無聲, 坐終日, 鳥不鳴의 표현도 이러한 그의 답답한 심정의 표출로 보인다. 따라서 清代 吳振之는 〈宋詩鈔臨川集鈔〉에서 “안석은 한가롭고 답답함 가운데에 머무는 듯하면서 세상 밖으로는 자신의 悲壯함을 내비치고 있다”<sup>38)</sup>고 평가하였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擬詩20首〉는 대개 왕안석이 서거 전 3~4년경에 쓰여졌고, 또한 동봉했던 〈寄吳氏女子〉와 다른 의도로 쓰여졌다. 〈寄吳氏女子〉가 대부분 자신의 일상에 대한 내용과 주변의 자연에 대한 예찬이라면, 〈擬詩20首〉는 기본적으로 불교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불교가 왕안석 말년에 자신의 정신적 고통 해소의 통로였음을 의미한다. 〈擬詩20首〉에서 왕안석은 기본적으로 佛理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설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현실에

35) “杖藜隨水轉東岡，興罷還來赴一床。堯桀是非猷入夢，因知余習未全忘。”

36) “六年湖海老侵尋，千里歸來一寸心。西望國門慙短發，九天宮闕五雲深。”

37) “澗水無聲繞竹流，竹西花草弄春柔。茅簷相對坐終日，一鳥不鳴山更幽。”

38) “安石遺情世外，其悲壯即寓閑淡之中”，朱自清，〈宋五代詩鈔〉，P 157，上海古籍出版社，1981年の 재 인용.

대한 입장과 심정의 토로가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擬詩20首〉를 통해 불교적 습의의 표출 외에 왕안석 내면의 심경 표출과 메시지 전달을 시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擬詩20首〉는 윤회를 주제로 시작하여 형벌에 대한 주제로서 끝맺고 있다. 왕안석이 윤회를 〈擬詩20首〉의 첫 주제로 삼은 것은 당시 그가 사후세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제1.2수에서 그는 사후에 과연 누가, 또 어떤 인연으로, 소와 말처럼 자유를 잃고 속박 당할 것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2수 끝에서 “好惡가 일정하지 않음은, 허상의 물질에 부립당한 것임을 알아야 하나니, 당당한 대장부여, 허상의 물질이 자기라고 생각하지 말라”<sup>39)</sup>고 권계하며 끝맺고 있다. 여기서 好惡가 분명하지 않음이란 개혁에 대해 일정한 입장을 견지하지 않았던 당시 사대부들의 처신을 지적하려는 뜻도 함축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대장부에 대한 권계는 윤회의 본질에 대해 이해할 것을 촉구하고 조속히 자신의 진정한 모습의 회복을 권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시는 큰 틀에서는 불교의 교리를 논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현실에 대한 자신의 입장 표명라는 이중의 의미가 담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擬詩20首〉 여러 곳에서 왕안석의 정신적 방황과 고통이 표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5수의 마지막에서 “일찌기 놀라게 하고 가위 놀리게 하니 어찌 편한 잠을 잘 줄 알리요.”<sup>40)</sup>라하며 자신의 불안한 정신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가하면, 또 제10수에서는 후회와 질책이 악습처럼 반복되고 있다면서<sup>41)</sup>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방황하는 모습이 표출되고 있다. 또

39) 제1수 전문 : “牛若不穿鼻, 豈肯推人磨. 馬若不絡頭, 隨宜而起臥. 乾地終不流, 平地終不墮. 擾擾受輪迴, 祇緣疑這箇.”

제2수 전문 : “我曾爲牛馬, 見草豆歡喜. 又曾爲女人, 歡喜見男子. 我若真是我, 祇合長如此. 若好惡不定, 應知爲物使. 堂堂大丈夫, 莫認物爲己.”

40) “令汝嘗驚駭, 豈知安穩睡.” 〈擬詩20首〉第5首 中的 詩句.

41) 제4수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昨日見張三, 嫌他不守己. 歸來自悔責, 分別亦非理. 今日見張三, 分別心復起. 若除此惡習, 佛法無多子.” (어제는 장삼을 만났더니, 그가 제 한 몸 지키지 못했음을 불평하더라. 돌아와 스스로 후회하고 질책하지만, 분별하는 것 또한 이치가 아니로다. 오늘은 장삼을 보았더니, 분별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구나. 만약 이 악습을 없애버릴 수 있다면, 불법도 별로 복잡하지 않으려만)

한 제14수에서는 “처음부터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번뇌가 있었으랴”<sup>42)</sup>라며 자신의 오랜 정신적 고뇌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제4수에서 그는 당시 자신의 처지를 마치 바람에 날린 기왓장에 머리가 부딪혀 피를 흘리고 있는 절박한 상황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왕안석은 당시 매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불안하고 힘든 정신적 고통의 시기가 한동안 지속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제4수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새로운 반전을 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4수를 보면:

새찬 바람 불어 집 기왓장이 무너지며, 바로 내 머리통을 박살내버렸네.  
 기와 또한 저절로 부서져 버렸으니 어찌 단지 내 피만 흘렸겠는가.  
 내 끝내 기와에게 성내지 않음은, 이 기왓장 스스로 한 것이 아닌 까닭이다.  
 중생들이 많은 악을 짓는 것 또한 하나의 부추김이 있었기 때문이라네.  
 사람은 이 이치를 알지도 못한 탓에 스스로 자기 잘못이라고 여기는구나  
 이는 오직 가엾을 뿐이니, 권하건대 참으로 바르게 수양하시게.  
 어찌 스스로 혼미와 번민에 빠져, 그와 원수 짓는가.<sup>43)</sup>

윗 시에서 왕안석은 절박한 상황에 대해 개인적 원망이나 섭섭함을 표출하기 보다는 그들과의 새로운 관계모색을 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자신에게 상처를 안겨준 반대세력의 행위에 대해 반대를 부추기는 일련의 機制나 조건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왕안석은 개혁 반대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왕안석은 자신의 반대세력과의 화해 또는 새로운 관계설정의 모색을 시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모두가 진정으로 수양할 것을 권계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반전은 구체적으로 개인적 好惡나 怨恨의 굴레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반전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말년에 접어

42) “自始而至今，有幾許煩惱”。〈擬詩20首〉第14首 中的 詩句。

43) “風吹瓦墮屋，正打破我頭。瓦亦自破碎，豈但我血流。我終不嗔渠，此瓦不自由。衆生造衆惡，亦有一機抽。渠不知此機，故自認愆尤。此但可哀憐，勸令真正脩。豈可自迷悶，與渠作冤讎。”

들면서 그의 인생관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3수에서 그는 “生死란 꿈꾸고 꿈 깨는 것과 같다”<sup>44)</sup>며 인생을 일장춘몽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제11수에서는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면서 인생은 결국 꼭두각시 놀음에 불과하다고 까지 규정하고 있다<sup>45)</sup>. 또한 제14수에서는 “보이는 것은 또한 무엇이 있으랴, 번개가 쓸어버리듯 홀연히 사라지리니”<sup>46)</sup>라며 인생의 허망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왕안석은 말년에 들면서 과거의 적극적인 인생관에서 점점 허무적이고 회의적 인생관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는 자신의 과거의 행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제7수에서 그는 禪宗에 심취하여 불립문자 정신에 입각하여 스스로를 ‘閑道人’이라며 자처하고 있다. 이는 자신은 책에 얽매이지 않고 천하의 이치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인임을 표현한 것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면, 과거 자신의 독서인 생애와 천하의 이치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역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제15수에서 “뜻을 잃으면 복 짓기 어렵고, 권력이 높아지면 죄 짓기 쉽다”는 짓기는 자신의 官職 시절을 명예욕이 앞섰던 시간이라고 인식하는 일종의 自悔의 뜻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18수에서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인생에 대해 “하루 아침에 토굴에 묻히면, 혼백이 산산히 흩어질 것이라”<sup>47)</sup>라는 결론은 허무주의적 인생관을 연상케 한다.

〈擬詩20首〉에서 왕안석은 시종 일관되게 인생은 자유롭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늘 허상에 부림 받고, 스스로가 꼭두각시인지도 모른 채 부림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자신을 미워하고 반대했던 자들 또한 그들의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인식을 도출해내게 된다. 여기서 그는 반대자와의 화해를 모색하고, 이러한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擬詩20首〉를 쓸 무렵 왕안석은 이제 개인적 怨恨이 전혀 없음을 알리고, 또 第14首에서 “~가 나쁘다고 미워하지 말며, ~가 좋다고 좋아하지 말일이라”<sup>48)</sup>며 자녀에게 권계하기에 이른다. 그

44) “生死如覺夢 此理甚明白” 〈擬詩20首〉 第3首 中の 詩句.

45) “傀儡紙一機 種種沒根栽 被我入棚中 昨日親看來 方知棚外人 擾擾一場戲 終日受伊謾 更被索錢財.”

46) “見之亦何有 欸然如電掃” 〈擬詩20首〉 第14首 中の 詩句.

47) “一朝投土窟 魂魄散逃逃.” 〈擬詩20首〉 第18首 中 마지막 부분..

리고 제19수에서 “용감하기로는 맹시사가 있는데,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면 부처님의 환심을 얻을 것이로다”<sup>49)</sup>라는 뜻은 결국 진정으로 용감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라는 명제로서, 이익과 명예, 미움과 원한 모두 버릴 것을 강조한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왕안석이 〈擬詩20首〉를 통해 전달하려는 모든 메시지의 결론이라고 추정된다. 이는 또한 말년 왕안석의 심경이 모든 것을 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윤회를 기다리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기도 하다.

#### 4. 결론

〈擬詩20首〉는 왕안석이 장녀에게 보낸 〈奇吳氏女子〉와 함께 보낸 작품이다. 시문에 대한 분석 결과 〈擬詩20首〉는 서거하기 약 3년 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왕안석은 서신을 보내면서 〈奇吳氏女子〉는 산하에서의 유유자적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擬詩20首〉는 자녀들의 정신을 깨우치기 위한 목적으로 썼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강력하게 추진했던 개혁이 후퇴되고, 또한 가정적으로 총애했던 장남 등이 사망하여, 깊은 실의에 빠져 낙향한 노정객이 인생말년에 자녀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점에서 상당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擬詩20首〉를 분석한 결과, 모두 10개의 주제가 제시되고, 한 주제에 1~3수씩의 시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제1~2수에서 윤회사상을 주제로 제시하고, 마지막 제20수에서 윤회과정에서 발생하는 형벌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음은 〈擬詩20首〉가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분석 결과, 대체로 제1~7수는 주제별 연관성이 강

48) “莫嫌張三惡 莫愛李四好” 〈擬詩20首〉第14首 中的 詩句.

49) 제19수 전문은 다음과 같다. “勇有孟施舍, 能無懼而已. 若人學佛法, 勇亦當如此 休來講下坐, 莫入禪門裏. 但能一切捨, 管取佛歡喜.”(용감하기로는 孟施捨가 있으니, 능히 두려움 없을 뿐이로다. 만약 사람이 佛法을 배운다면 용맹심 또한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리라. 講學하는 자리에 찾아오지 말고, 禪門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 모든 것을 버릴 수만 있다면, 부처님의 환심을 얻을 수 있으리라.)

하고, 제8~20수는 주제 보다는 소재와 시어를 중심으로 연관성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볼 때 20수가 일정한 기획아래 순서대로 쓰여진 연작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들 20수를 비록 寒山拾得詩의 模作이라고 하지만, 〈擬詩20首〉가 구체적으로 한산습득시의 특정 시를 베끼거나 詩句를 그대로 차용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擬詩'라고 한 것은 한산시의 특징, 즉 생활 언어의 詩語化 등을 통한 통속성, 분명한 메시지 전달의 목적성, 아울러 불교적 교화와 권계의 교훈성을 추구했던 한산시의 문학전통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동안 〈擬詩20首〉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불교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교시로서 간주되어 왔다. 당시 그가 불교에 깊이 심취하였던 관계로, 모든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상 역시 불교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불교적 관점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한 것은 분명하다. 불교가 일종의 정신적 도피처였는지, 혹은 진정으로 불교에 심취하여 정신적 고통과 방황을 해소한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 다만 그가 불교를 통해서 현실과 화해하고, 모든 원한의 짐을 벗고 자유로운 말년을 구가하고 싶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그에게 불교는 어지럽고 복잡했던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끈 중요한 도구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비록 〈擬詩20首〉가 불교 교리와 불교적 관점에 의한 권계가 주요 내용이지만, 동시에 복잡다단한 세상사와 인생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퇴은 이후 쓴 〈杖藜〉, 〈六年〉등의 만년시에는 왕안석은 퇴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세상의 정치현실에 대한 분노와 우울한 심정이 표출된 시가 적지 않고, 〈擬詩20首〉의 여러 시에서도 그가 겪은 정신적 방황과 고통이 표출되어 있다. 다만 〈擬詩20首〉를 쓸 무렵, 그의 인생관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음이 감지된다. 당시 왕안석은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모든 욕망과 원한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자신의 과거 화려했던 정치역정 마저 한 때의 꼭두각시 놀음이었다는 허무주의적 인생관에 접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제 과거의 榮華와 현재의 怨恨을 모두 버림에 따라, 그는 불만스러웠던 시대와의 화해, 반대자와의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극적 화해의 이면에 불교사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擬詩20首〉에는 격랑을 헤치며 살아온 한 노정객이 인생말년에 모든 것을 버리고 홀가분하게 윤회를 준비하면서 쓴 회한의 고백이 담겨 있다. 따라서 〈擬詩20首〉를 일반적인 종교시의 영역에 귀속시키는 것은 편면적이고 지나친 단순화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지면관계상 본고에서는 〈擬寒山拾得詩20首〉 전체를 게재할 수 없었으나, 향후 왕안석의 〈擬寒山拾得詩20首〉 전체에 대한 번역과 주해를 통해 다시금 본고 논지의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 《參考文獻》

- 楊家駱主編, 《王荊公詩李氏注附沈氏勘誤補正》, 臺灣 鼎文書局, 1979.  
 吉川幸次郎 著 鄭清茂 譯, 《宋詩概說》, 臺灣 聯經出版社, 1977.  
 杜松柏, 《禪學與唐宋詩學》, 臺灣 黎明文化出版公司, 1978.  
 周裕鐸, 《宋代詩學通論》,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莫礪鋒, 《唐宋詩歌論集》, 南京 鳳凰出版社, 2007.  
 王兆鵬 黃崇浩 編選, 《王安石集》, 南京 鳳凰出版社, 2006.  
 方笑一, 《北宋新學與文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高克勤, 《王安石與北宋文學研究》,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6.  
 徐文明, 《出入自在—王安石與佛禪》, 河南 河南人民出版社, 2001.  
 劉乃昌, 《兩宋文化與詩詞發展論略》, 山東 山東大學出版社, 2005.  
 趙仁珪, 《宋詩縱橫》, 北京 中華書局, 1994.  
 張培鋒, 《宋詩與禪》, 北京 中華書局, 2009.  
 周寶珠 陳振 主編, 《簡明宋史》, 北京 人民出版社, 1885.  
 鄭廣銘, 《王安石》, 陝西 陝西師範大學出版社, 2009.  
 韓景太, 《宋代詩歌史論》, 吉林 吉林教育出版社, 2006.  
 熊海英, 《北宋文人集會與詩歌》, 北京 中華書局, 2008.  
 朱自清, 《宋五代詩抄》,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鄭士元, 《國史論衡》, 香港 波文書局, 1979.

- 崔小敬,《寒山：一种文化現象的探尋》，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0.
- 李鮮熙,〈寒山詩와 北宋詩壇〉,《中國文化研究》, 14輯, 2009.
- 李春桃,〈論王安石晚期思想並非崇佛〉,《求索》, 2004.
- 倪祥保,〈略論王安石的佛詩〉,《文學遺產》, 第3期 2000.
- 張煜,〈王安石與佛教〉,《聊城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4.

### 《中文提要》

王安石作《擬寒山拾得詩20首》的時期, 据《奇吳氏女子》里的內容推算, 大概推定在他逝去前三年左右。

專為傳送給他的子女而寫, 王也表示其寫作動機為“覺汝耳目熒”, 所謂‘耳目熒’是指精神上的啓發。就當時情況而言, 王安石辭掉宰相隱居金寧已過七年, 原來他強力執行的改革措施日益後退, 對他的批判亦日益增多, 受到精神上的打擊, 頗為失意。正處於無法打開困境之際, 所以《擬詩20首》被稱為王安石晚年的代表作品。

看《擬詩20首》之內容, 因以佛教思想為主, 而通常被評為佛教詩。王安石確實在晚年深醉佛教, 以此試圖解消精神上的苦境。細析整個20首, 也露出他的悔恨和憂鬱, 明確表示對世事及人事的立場, 同時積極尋找解脫方法。所以稱《擬詩20首》專為佛教詩, 只不過屬於片面的評價。在形式方面, 王安石設定10個主題, 每一個主題寫成1-3首詩, 但因不見一脈貫通全詩的主題, 而似乎非連作詩。20首的構成, 有以主題為中心的詩群, 也有詩語或素材為中心的詩群, 不論如何, 20首都互為相當緊密的連繫。

比照《擬詩20首》與寒山拾得之詩, 無法發現直接模擬的痕迹。但考王安石為何稱之‘擬詩’, 就繼承寒山詩的文學傳統。像寒山詩, 王安石也要向外告知他內心的真情, 又以詩勸戒, 致於啓發子女。那麼, 所謂內心的真情而言, 基於佛教思想, 要放棄一切的怨恨和慾望, 並企圖重新設計與世人的關係, 且重新摸索與現實的和諧, 以備即將來臨的輪回。種種的跡象顯示, 《擬詩20首》可稱之為一位老政客吐露人生心懷的告白文, 不應歸屬於宗教詩領域。

**關鍵詞** : 왕안석, 한산습득시, 의시, 불교시, 송시

이 논문은 2010년 11월 20일에 접수되어 2010년 12월 16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0년 12월 21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